

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(CORE) 우수사례(부산외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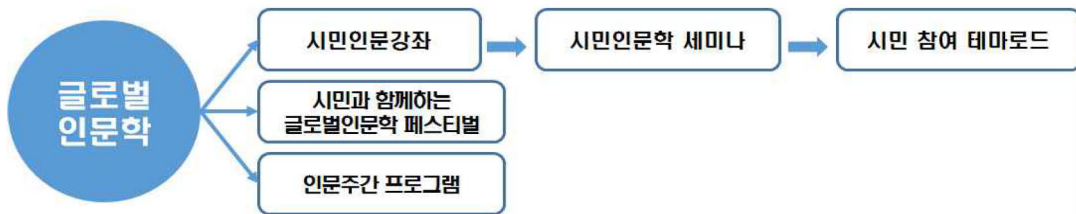
[2] 인문학 분야 사업성과 확산 우수사례

■ 글로벌인문학의 시민 사회 환류 ■

□ 목적 및 배경

- 고등교육의 보편화에 따른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시민 대상 프로그램의 필요성 대두
- 우리 대학의 글로벌인문학 교육역량을 시민사회로 확산하여 지역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인문학의 역할과 가치 구현

□ 추진 내용



[글로벌인문학 지역시민사회 확산]

- 일반 시민 대상의 시민인문강좌를 단발성 행사가 아닌 연속 강좌로 실시
- 시민인문강좌를 통해 인문학 심화 학습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세미나 후속 사업 진행(시민인문학 세미나)
- 시민인문강좌에서 인문학 세미나로 이어지는 교육 체계를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 참여형 테마로드로 확장할 예정(2018)
- 인문학의 가치를 시민들이 모이는 공공의 장소에서 남녀노소가 참여하는 축제로 구현(시민과 함께하는 글로벌인문학 페스티벌)
- 우리대학 교원-학생-시민이 함께 하는 답사형 프로그램 마련(인문주간)

□ 실적 및 성과

추진연도	시민인문강좌	시민인문학 세미나	글로벌인문학 페스티벌	인문주간
2016	10강좌, 총 732명 참여	-	-	-
2017	20강좌, 총 1,118명 참여	5회, 50명 참여	1회, 약 500명 참여	3회, 약 250명 참여

- 글로벌인문학 시민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1차년도 시민인문강좌 프로그램을 2차년도에는 4개의 프로그램으로 확장

- 2차년도 시민인문강좌는 시민인문학 세미나, 시민인문학 페스티벌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단순한 강좌 위주의 수업방식에서 벗어나, 능동적 참여형 프로그램 방식으로 운영되었음
- 지역 시민들이 인문학을 강의실 특강 형식에서 벗어나 축제를 통해 경험하면서 인문학적 가치를 친근하게 공유함
- 교내에서만 운영되던 1차년도 시민인문강좌를 2차년도에는 교외로 확대하여 소외된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로 개최(북구만덕사회복지관, 5강좌 총 143명 참여)



[지역 신문 보도자료]

□ 분석 및 평가

- 테마로드로 개발한 글로벌인문학 콘텐츠를 시민강좌에 활용하고, 이것이 글로벌문화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여 교수와 시민이 직접 현지에 나가 글로벌인문학을 경험하는 시민 참여형 테마로드 프로그램으로 실행하기 위해 인문학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음
- 글로벌인문학은 문화 간 소통과 공감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프로그램 다양화, 질적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